

시론



이정록

전남대 교수, 前 대한지리학회장

“나는 ‘협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조 직 내 상사는 늘 협한 파도였습니다. 그들은 늘 내게 파도를 이겨나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내 스스로 그 파도를 여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고,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관리자가 된 이후에 내 스스로 협한 파도이기를 자처했습니다.”

윤영갑이 쓴 책 ‘너도 먼 서기나 한번 해봐라’(에드필기획, 2019)의 머리말 중 일부다. 그는 강진군 면(面) 서기 출신 공무원이다. 저자는 ‘지나온 삶, 꽃으로 피어난 흔적과 세상사는 이야기, 40여년 공직 생활에서 묻어낸 마음의 소리’를 담은 책이라고 한다. 장·차관이나 고위 공직자 출신도 아닌 일개(一介) 하급 공무원 출신이 쓴 책이다. 자신이 이력과 가족사항, 공무원 생활에 대한 소회, 공직자 자제 등을 겁도 없이 쓴 책이다.

윤영갑은 강진 군동면 출신이다. 지금도 그곳에 산다. 강진과 장흥에서 중·고를 나왔고 대학 졸업 후 19

책을 내는 강진군 ‘면(面) 서기’ 출신 윤영갑

83년 경북 영양군에서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농업직에서 임업직과 행정직으로 전직했고, 강진과 장흥을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계급도 두 번이나 낮아졌다. 하지만 지방 서기관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군수와 부군수를 제외하면 9급에서 시작해 최고로 출세한 거다. 가장 출신 아버지다 ‘너도 먼 서기나 한번 해봐라’라는 말에 공직에 뛰어들었다는 효자의 결심이다.

윤영갑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신분이다. 공로연수란 사회 적응 훈련 과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와이프 따라 다니고, 막걸리 먹고, 손자 보면서 소일(消日)한다. 하지만 위커홀릭 윤영갑은 달랐다. 지금이 시간에도 광주에서 ‘쇼해설가’ 교육을 받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받는단다. 위커홀릭 환자 밑에서 일한 직원들은 어땠을까. 스스로 ‘협한 파도’이길 자처한 상관이니 안 봐도 비디오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윤영갑은 참 관찰은 공무원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아페구맨(A Few Good Men)이다. 주인공 톰 크루즈가 다니엘 캐피 중위 역할을 맡아 쿠바 판타노마 기지에서 벌어진 해병 사망 사고를 다룬 영화처럼 말이다. 일단 끝났었다. 옷과 머리 스타일은 항상 단정하다. 강남 스타일이었다. 박식(博識)했다. 필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내공(內政)에 손색이 없었

다. 게다가 행동은 쿠팡처럼 빨랐다. 필자가 자료를 요구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됐다. 필자가 ‘윤영갑은 참 관찰은 공무원’이라고 평하는 이유다.

필자가 윤영갑을 안지는 얼마 안됐다. 지금부터 4년 전이다. 강진군 현안을 부탁하기 위해 필자 연구실을 노크했다. 비즈니스 목적이었고, 5개월 간 자주 만났고 토론했다. 윤영갑이 의뢰한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필자가 좋아하고 홍보한 강진 토속미(畵)를 뽑내는 ‘홍춘이보리밥’ 식당(광주매일신문 시론, 2017년 7월 26일자)도 그래 알게 됐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계가 끝나면 교류와 접촉도 끝난다. 그게 인생사다. 그런데 윤영갑은 달랐다. 문자와 안부 전화로 교류를 이어갔다. 이해관계가 끝난 필자에게 말이다. 그러니 인간적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윤영갑이 최근 필자에게 책을 보내왔다. ‘존경하는 이정록학장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라는 저자 사인과 함께 말이다. 반갑고 금금해서 단숨에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필자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노안(老眼) 때문이 아니라 시골 촌놈 이야기가 곳곳에 써져 있어서다. 쌀 돈 사리 시장에 간 어머니 이야기, 고교시절 불어빵과 국화빵을 사먹기 위해 장흥에서 강진까지 서너 시간 걸어서 집에 온 이야기, 제조제가 뿌려진 박학을 설

탕물에 타먹고 ‘저승 문턱에서 돌아온 막내 동생’ 이야기 등은 바로 필자 이야기였다.

윤영갑은 필자가 인정하는 ‘참 관찰은 공무원’이다. 필자는 비즈니스 또는 개인적인 관계로 공무원을 자주 만났다. 벌써 33년째다. 그런데 윤영갑은 ‘글을 쓸 줄 아는’ 공무원이었다. 글쓰기가 업(業)인 필자도 쓰기 싫어하는 글을 1996년 홍보팀 차석 때부터 썼다. 강진신문을 비롯한 5개 로컬 신문에 꾸준히 글을 기고했다. 관(官)에서 하는 일을 군민이 알아야 한다는 의도였단다. 공무원 역할을 제대로 안 거다. 그러니 필자가 반하지 않고 배길 수 없지 않겠는가. 필자가 윤영갑을 ‘참 관찰은 공무원’이라 평하는 까닭이다.

윤영갑은 새로운 책을 집필하고 있다. 시골 공무원에게 필요한 보고서 작성, 홍보기법, 의전 관계 등에 관한 책이다. 위커홀릭의 지존(至尊)을 꿈꾸지 않으면 업도 못 낼 일이다. 사실 요즘 공무원 중 윤영갑을 뛰어넘을 신참들이 많다. 필자 제자 중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이재원 주무관, 구례군청 근무 예정인 김현주 주무관도 그런 부류다. 그런데 아쉽다. 젊은 공무원에게 ‘협한 파도’ 역할을 할 윤영갑류(類) 공무원들이 퇴장해서다.

‘너도 먼 서기나 한번 해봐라’의 저자 윤영갑은 참 관찰은 면(面) 서기였다.

社說
영호남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혁신경제 동맥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 등 영·호남 지역 6개 광역지자체와 8개 기초지자체는 어제(13일) 광주시청에서 제5차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9월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 대비한 사전협의 성격으로 지자체별 역할분담에 초점을 뒀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월 대구 엑스포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유 8개 지자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갖고 조기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광주·대구 및 경유지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로 올해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토부가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해 사업추진 가시화에 추동성을 확보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간 191.6km 구간을 최고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화 철도로, 철도 건설은 광주·대구간 1시간 이내 생활권을 형성해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국민

대통합·상생 도모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충정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경남 ▲함양-거창-합천 ▲해인사-경북 ▲고령-대구 서대구역을 잇는 단선철도다. 사업비는 4조8천987억원(전액 국비)으로 추산하고 있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인구 1천300만 명 규모의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산업구조 연계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돼 양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초광역 남부경제권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 자동차산업, 대구 자동차부품산업, 목포 조선산업, 여수 석유화학, 포항 철강산업, 부산 물류산업 등 분산 배치된 산업 클러스터들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상호연계로 단일 경제권 형성, 경제효과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혁신경제의 대동맥이 될 수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립사업이 반드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광주천 국가하천 승격 재해예방 강화 기대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하천으로 전환되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돼 홍수피해 예방 등 치수대책은 물론 재해예방 사업과 유지관리비의 국비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도심지 하천의 홍수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하천으로의 지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천의 주요 시설인 하천제방, 제방을 횡단하는 오수과 오수관로, 보, 낙차공 등을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광주천은 현재 직강화로 강폭이 대폭 줄어들고 독을 높이 쌓아 경계선이 뚜렷하지만 예전에는 강변 백사장에 장이 서고 3·1만세운동, 국악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광주천은 무등산 중심사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읍성의 서문을 지나 서석교 일대 취수구를 통해 서쪽 성벽앞과 북쪽 성벽을 휘감고 돌아 궁궐에는 계림동 경양방죽에 도달했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구간마다 저마다의 향토색 짙은 이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천은 구한말까지 존재했던 광주읍성의 ‘해자(壕子)’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봇도랑 역할을 했다. 이처럼 광주천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서린 곳이다. 그윽한 역사가 담긴 광주천을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청사전을 내놓은 바 있다. 청사전의 끝자리는 오는 2021년까지 총 37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을 상시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 및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제4수원지에서 남광주역까지 4.4km 구간에 관로를 설치해 하루 평균 1만6천ℓ의 수원지 물을 흐르게 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보존존, 생태체험존, 생태문화존, 생태휴양존 등 4개의 테마존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생태문화존은 아리랑물길 사업의 핵심구간으로 문화전당-양림역사마을과 사직공원-광주공원-남광주시장-양동시장을 아우르는 관광문화벨트 구축계획을 담고 있다.

혹여 국가하천 지정으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도심속 하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올해 8월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복절은 국경일로 공휴일이지만 이날 우리는 자라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려 주고 국가관을 심어 주는 국가관 교육의 날로 뜻깊게 보내야 한다.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휴전이 아닌 종전 선언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건국 71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통일을 못 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과 억압 속에서 굶주리며 사는 우리 동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남북분단의 원흉이고 침략자인 일본은 아직도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사 반성은 하지 않고 일본 부흥에 의존하는

한국공산품의 생산을 중단시키려고 경제 전쟁을 일으켜 생산 공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교과서에 왜곡하여 지도하고 있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변할 줄 모르는 일본의 침략야욕과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규탄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국가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1945년 8월15일은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된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이며,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5일을 광복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자녀와 학생들을 안내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과거사를 탐색해 보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어떠한 만행을 했는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독립기념관이다. 국가관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2천년을 국가 없이 떠돌이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의식을 지켜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에서 국가관 교육이었다. 독

광복절과 남북통일

립기념관에 들어서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다. 독립투사들에게 태극기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으려고 피를 흘리며 일제와 투쟁했다. 기념관에 전시된 독립투사들이 간직했던 피 문은 태극기는 보는 사람들을 숙연케 하고 있다.

광복절 아침에 국기를 자녀와 같이 게양하면서 제1차로 국가관 교육을 국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국기와 국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왕권 시대의 군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어 세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다.

일본은 1592년-1598년까지 7년 동안 임진왜란의 침략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고, 1910년 8월29일 경술국치로 우리나라를 빼앗아 36년 간 식민통치를 하면서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을 못 쓰게 하고, 한국 처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시켰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과 학생들을 징병 징용으로 끌어들여 희생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서도 우리의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독립을 위한 꾸준한 투쟁을 했으며,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고 독립을 하게 됐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 공산당의 반대로 남북한 통일을 못 하고 남한만이 1948년 5·10선거로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남북이 통일을 못 하고 6·25전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으며 지금도 통일을 못 하고, 정전이 아닌 휴전을 하여 휴전선 155마일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고통에서 광복은 되었지만, 주변 강대국인 미·소의 합의에 따라 남북 분단의 아픔을 주고 있으며 통일을 방해하며 간섭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의존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우리 힘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일본의 경제 식민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침략 야욕에서 벗어나 제2의 자주독립 광복의 날인 남북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뤄야 한다. 조국 한반도에서 조상이 같은 한 민족이라는 국가관을 정립하고 침략자 주변 세력을 물리치고 독일과 베트남처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독자투고

화재를 키우는 소화전 불법 주정차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를 대비해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이 때문에 소화전이 화재 진화는 물론이고 인명·재산피해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뉴스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졌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소화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차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아무렇게나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차 시 주변에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곳에서 화재 발생이 일어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심지어 소화전 인근이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소방시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 장치, 지상식 소화전, 연결 송수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종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또한 올해 8월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안전표시가 설



/김선조·영암119안전센터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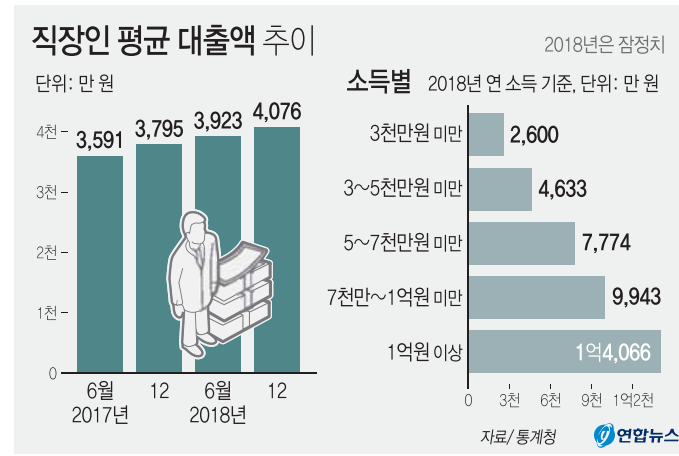
월급쟁이 평균대출액 4천76만원…40대, 6천만원 육박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천76만원으로 전년보다 281만원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40대의 1인당 평균대출액이 6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액(잠정치)은 4천76만원, 중위대출액은 3천66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81만원(7.4%), 342만원(10.3%) 증가했다. 평균대출은 임금근로자 개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전체 임금근로자수로 나눈 값이다. 중위대출은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이다. 개인 평균대출은 2017년 6월 말 3천591만원, 2017년 12월 말 3천795만원, 2018년 6월 말 3천923만원으로 계속 늘다가 작년 12월 말에 4천만원을 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이 5천9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천301만원)와 50대(4천981만원)도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60대(3천252만원), 70세 이상(1천450만원), 29세 이하(1천93만원) 순이었다. 이 중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은 전년보다 304만원(38.5%) 증가했고, 70세 이상은 53만원(3.5%) 감소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99
정기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